

“추신수 연봉 확 깎아도 TEX 리턴 가능성 낮아”

추신수(38)가 연봉을 대폭 깎아도 텍사스와 인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추신수는 2014년, 7년 총액 1억3,000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맺고 텍사스 유니폼을 입었다. 추신수는 올해로 그 7년 계약이 모두 끝났다. 텍사스에서 뛴 동안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빛난 시즌도 있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친 시즌도 있었다. 이 때문에 대체로 1억3,000만 달러라는 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추신수는 클럽하우스에서 존경을 받는 리더이며, 저렴한 몸값이라면 1년 정도 더 팀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락하는 타율·장타율과 별개로 출루율은 비교적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유력 매체인 '델러스모닝뉴스'는 연봉을 깎는다고 해도 텍사스가 추신수의 복귀를 바랄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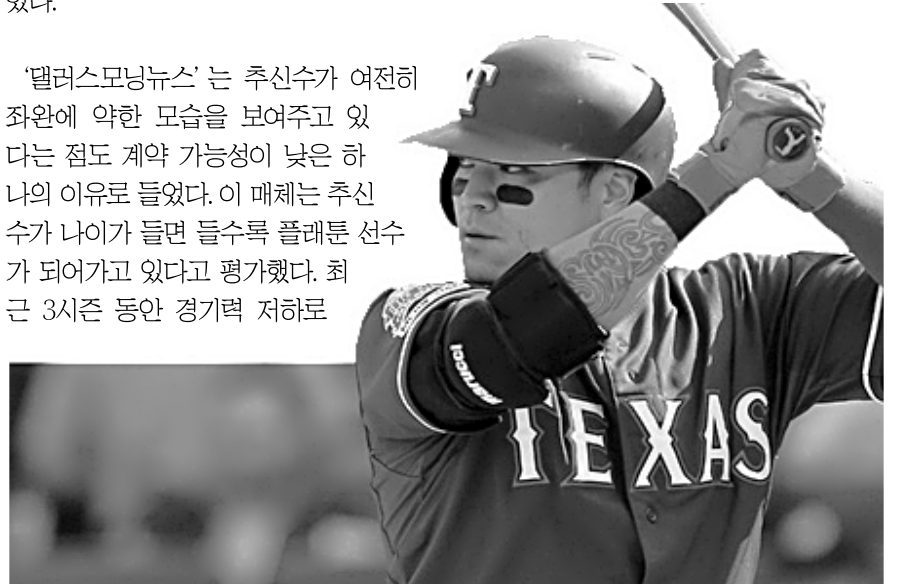
'델러스모닝뉴스'는 17일 팀의 2021년 지명타자 포지션을 전망하는 자리에서 추신수의 올해 성적이 지난 6년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델러스모닝뉴스'는 “올해 추신수의 OPS(출루율+장타율)는 0.723으로 2019년보다 0.100 이상, 그리고 텍사스에서의 6년 평균보다 0.070 이상 떨어졌다. 그나마 지명타자로 는 겨우 0.600을 넘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의 결론은 추신수의 복귀는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델러스모닝뉴스'는 “추신수는 FA로 영입할 수 있고 두각을 드러낼 정도의 적은 돈으로 텍사스에 복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지명타자 포지션은 젊은 타자들에게 경험

을 주려고 하는 팀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다. 좌타자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칼훈을 활용하거나 추신수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디트리히와 재계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델러스모닝뉴스'는 추신수가 여전히 좌완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계약 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이 매체는 추신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플래툰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3시즌 동안 경기력 저하로

좌완 상대로는 단 38타석만 소화했다면서 “2018년 이후 좌완을 상대한 437타석에서 그는 타율 0.225, 출루율 0.318, 장타율 0.334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 추신수가 텍사스와 재계약할 가능성이 낮으로 관측됐다. 사진=타운뉴스DB

최경주 “임성재, 훌륭한 선수 될 것 ... 마스터스 2위 축하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척자 최경주(5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공동 2위를 기록한 임성재(22)를 축하했다.



▲ 지난해 프레지던트스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임성재(왼쪽)와 최경주. 사진=타운뉴스DB

17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최경주는 전날 PGA 투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임성재가 공동 2위로 잘 마무리한 것을 축하한다.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기록들 세워나가면서 오래 오래 PGA 투어에서 활

약했으면 좋겠다.”고 축하와 덕담을 전했다.

최경주는 임성재가 최종 라운드 챔피언 조에서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과 동반 플레이한 것을 떠올리며 “사실 조 편성 보고 마지막 조에서 존슨과 플레이를 하면 좀 힘들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 게임을 충실히 해나가는 걸 보고 앞으로 좋은 기록을 내고,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경주는 “너무 자랑스럽다. 임성재가 앞으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다시 한번 2위 축하한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경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지난 15일 마스터스에서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2위를 기록, 종전 최경주의 2014년 3위를 뛰어넘는 아시아 선수 마스터스 최고 순위를 써냈다. 임성재는 이 대회 준우승으로 상금 101만2,000달러를 거머쥐었다. 임성재는 경기 후 “이번이 마스터스 데뷔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처음 목표가 컷 통과였기 때문에 진짜 잊을 수 없는 대회가 됐다.”면서 “준우승은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승은 마스터스 사상 최초 20언더파로 최저타(종전 18언더파·97년 타이거 우즈, 2015년 조던 스피스) 기록을 세운 세계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이 차지했다.

최경주는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 PGA 투어에 진출해 통산 8승을 거둔 한국 골프계의 전설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시즌에는 PGA투어와 챔피언스투어(시니어 투어)를 병행하고 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학,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